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기포트

2012. 10.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6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sup>2</sup>	GDP	5,768 억 달러 (2011년)
인구	28.17 백만명	1인당 GDP	20,504 달러 (2011년)
정치체제	군주제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달러 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6.1%에 달하는 2,654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3.9%에 해당하는 8조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으로,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 있으나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임.
- 2005년 8월에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의 통치하에 안정적인 왕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다변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선진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유화 정책 시행으로 반정부시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임.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유가상승 및 원유생산량 증대로 견고한 경제성장 시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전세계 석유의 13.2% 생산)으로서, 경제성장이 국제유가의 등락과 원유 생산량의 증감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 및 감산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0.1%에 그쳤으나, 2010년 국제유가 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이 5.1%로 회복되었음.
- 2011년에는 고유가 지속 및 리비아의 원유공급 감소분 보충을 위한 대규모 증산에 따라 7%의 고성장 시현
  - 정유·화학 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비석유부문도 건설,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8%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 원유 생산량 추이(백만 b/d) : 10.4('07) → 10.8('08) → 9.8('09) → 10.0('10) → 11.2('11)
- 2012년에도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산유량 증대로 원유생산량이 30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5.6%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원유생산량의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이 4%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 □ 국제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 완화

- 2011년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식품가격의 안정으로 전년 (5.3%) 대비 소폭 하락한 5%의 물가상승률 기록
  -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초 생필품(식품, 전력요금 등 포함) 가격 안정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

- 2012년 상반기에는 임대료 상승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신규 부동산 공급과 주택 담보대출법(mortgage law) 시행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 연평균 4.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 원유수출 수입(收入)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 대폭 확대

- 2011년 원유수출 수입 증대로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3.6%의 재정수지 흑자 기록
  - 정부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 인상, 교육·보건부문의 지출 증가, 인프라 건설 등 확대 재정정책 지속 실시
- 2012년에도 재정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나, 재정수입의 소폭 감소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폭은 12%로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제성장률	4.2	0.1	5.1	7.0	5.6
재정수지 / GDP	32.5	-6.1	5.1	13.6	12.0
소비자물가상승률	9.9	5.1	5.3	5.0	4.6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산업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

-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45%,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 사우디아라비아의 교과 과정 중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박사학위자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학 박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사회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형편임.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의 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6.1%인 2,654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3.9%인 8조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와 2,7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경제 중심국임.
- 원유는 대부분 동부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인 가와르(Ghawar, 700억 배럴), 세계 최대 해상유전인 사파니아(Safaniyah, 190억 배럴), 압카이크 (Abqaiq), 베리(Berri) 등이 있음.
-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다. 정책성과

□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의 탈석유화 추진

- 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광업공사(MAADEN) 중심의 광업 개발, 기타 제조업 및 관광\*의 5대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기간에 메카(Mecca)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매년 3백만 명에 달하고, 관광수입은 GDP의 1.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호텔, 교통(철도, 공항, 도로 등) 등의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 중임.

- 특히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유·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2004년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
- \*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감소로 2011년 FDI 유입액은 164억 달러 기록

####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압둘라 국왕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임.
- 주요 성과로는 사우디전력공사(SEC)의 민영화, 사우디텔레콤(STC)의 증권시장 상장, 사우디 국영광업공사 (MAADEN) 지분 매각, 사우디항공 (Saudi Arabian Airlines) 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음.

### 3. 대외거래

#### □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 고유가와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석유수출 호조로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2011년 상품수지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44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7.5%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상품수지 증가세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 투자 수익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23.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과 2005년부터 본격화된 FDI 유치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 5,255억 달러에 달하였음.
- 외채 규모는 최근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이나, GDP 대비 외채비중은 18.6%로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D.S.R.도 2% 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sup>e</sup>	2012 <sup>f</sup>
경 상 수 지	132,314	20,955	66,751	158,494	149,993
경 상 수 지 / G D P	27.8	5.6	14.8	27.5	23.1
상 품 수 지	212,026	105,229	153,717	244,712	244,647
수 출	313,480	192,307	251,149	364,735	381,473
수 입	101,454	87,078	97,432	120,023	136,826
외 환 보 유 액	440,130	396,748	432,094	525,521	626,820
총 외 채 잔 액	79,003	72,398	85,009	107,066	127,368
총 외 채 잔 액 / G D P	16.6	19.2	18.9	18.6	19.6
D S R	1.8	2.7	2.4	2.1	2.4

자료: IMF,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정치적 안정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국법으로 하는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는 한편, 종교 수장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

- 1932년 압둘 아지즈(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 초대 국왕 이후 알 사우드 가(Al Saud family)가 통치하고 있음.
- 현 압둘라 국왕은 2005년 8월에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총리를 겸임하고 있음. 각 장관, 주지사 (13개 주),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요직을 알 사우드 가문의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음.
- 의회나 정당은 없으며, 국왕이 임명한 1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음.

#### □ 후계구도의 불확실성 지속

- 80대 후반의 고령인 압둘라 국왕 이후 국정을 승계할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국왕 유고시 국정 혼란 가능성
  - \* 압둘라 국왕은 공정한 왕권 승계를 위하여 국왕 및 왕세제의 유고 시에 왕실위원회(Allegiance Commission)에서 국왕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왕승계법안을 2006년 10월 제정하였음.
- 2011년 10월 술탄 왕세제의 사망 후 왕세제로 즉위한 80대 후반의 나예프 왕세제마저 2012년 6월 사망함에 따라 살만 왕자(76세)가 차기 왕세제로 지명되었으나, 살만 왕세제 역시 고령으로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후계구도에 불확실성 지속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과 소수민족 시아파에 대한 정치사회적 차별로 인한 불만 등이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

-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11% 수준이나, 실제로는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에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Saudiz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5%를 상회하는데다 민간 기업들이 임금 수준이 낮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국민의 약 10% 정도로 추산되는 소수민족인 시아파(사우디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 밀집하여 거주)는 왕정 전복을 노리는 알-카에다 등과의 연계 의혹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공직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시아파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으며, 특히 1979년 이란 회교혁명 후에 시아파 밀집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소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부패 만연 등을 비판하는 정서 또한 확산되고 있음.
- 양호한 재정여건에 기반한 경제적 유화정책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희박
- 중동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 시아파 거주지와 홍수 피해를 입은 제다(Jeaddah)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하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국왕 및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또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튀니지, 이집트와는 달리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경제적 유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2011년 상반기 중동 민주화 혁명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건설, 공무원 임금인상,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강화 등 부문에 대한 약 1,300억 달러(2010년 GDP의 30%) 투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3. 국제관계

#### □ 외부 위협세력에 대한 지원 확보를 위하여 긴밀한 대미 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의 가장 중요한 미국 동맹국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깊은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정책과는 괴리가 있음.

#### □ 핵개발 의혹에 따른 중동 불안 우려 등으로 이란과의 갈등 심화

-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 이후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된 이래, 이란의 개혁파 하타미(Mohammed Khatami)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는 관계가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강경보수파인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수니파가 국민 대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 중동에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바레인 시위사태\* 진압을 위해 2011년 3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자, 이란 정부는 바레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심화되었음.

\* 바레인 시위사태는 집권층인 소수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반발로 발생.

#### □ GCC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서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 원유 매장량의 30%, 천연가스 매장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하여 역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역외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9년 12월 GCC 정상회의가 연합군의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제 출범을 위한 통화협정을 발효시켰으나 단일통화제 실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 UAE는 2009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향후 걸프 중앙은행의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통화동맹에서 탈퇴하였고, 오만은 단일 통화 체제의 가입을 위한 자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음.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단일통화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경험 없고 외채 상환능력 양호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외채규모의 약 5배에 달하는 5,255억 달러 수준이며, D.S.R도 2% 대에 불과하여 외채 상환 능력이 양호하며 리스케줄링 경험도 없음.

### 2. 국제시장평가

####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급, OECD 2등급 유지

- Moody's는 2010년 2월 양호한 재정상태, 경상수지 흑자 지속,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1에서 Aa3로 1 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우리나라는 총 9.3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9억 배럴로 31.4%를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011년 약 439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을 중심으로 약 69억 달러, 수입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3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제1위 국가

- 2011년 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액은 단일 국가로는 최고 금액인 1,012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4,800억 달러의 21.1%를 차지함.
- 2010년부터 국영석유회사 ARAMCO의 석유화학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5개년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개발사업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2년 6월 말까지 신규법인 수 192건, 총 투자금액 4.2억 달러에 불과함. 업종별로는 제조업(2.1억 달러)과 건설업(2.0 달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4> 한 · 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 출	3,857	4,557	6,964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류 등
수 입	19,737	26,820	36,973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의 강세와 원유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2011년 7%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2012년에도 5.6%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또한, 오일머니 유입 증대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높은 실업률과 소수민족 시아과의 정치사회적 소외에 따른 불만, 왕가의 부의 편중에 대한 불만 등이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양호한 경제여건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적 유화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 소요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2013년부터는 2012년 30년만의 최고치에 달했던 원유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국제유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정치·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4%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따라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외채의 5배에 달하여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조예림 (☎02-3779-5720)

E-mail: [yrcho@koreaexim.go.kr](mailto:yrcho@koreaexim.go.kr)